

이미 '金감자'인데...폭염·가뭄에 더 오른다

농촌경제연구원 '감자 9월호' 발표...전년 동기 30.4% 급등 주산지 강원 최악 가뭄에 출하량 감소...정부, 수급 대책 고심

대표 서민음식인 감자 가격이 기후변화 등으로 폭등하고 있다. 감자 주산지인 강원도에 폭염이 이어지고, 고령지 감자가 성장해야 하는 생육기(7-8월)동안 평년 60% 안팎의 비만 내리면서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9월에도 감자 출하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감자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감자 9월호'에 따르면 가락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의 감자(20kg) 도매가는 8월 1-23일 기준 3만 7080원으로 전년 동기(2만 8431원) 대비 30.4% 상승했다. 이는 평년 동기(3만 800원)보다 20.4%나 높은 수준이다.

감자 도매가는 통상적으로 1-5월 높은 가격을 보이다 6월부터 낮은 가격을 형성하지만, 올해는 6월부터 전년보다 8%가량 가격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8월 들어 전월 대비 19.1% 뛰며 상승폭이 대

폭 확대됐다. 도매가 상승에 따라 소매가도 크게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 8월 감자(100g) 평균 소매가는 385원으로 전년(360원)과 전년(311원) 대비 각각 7%, 23.8% 올랐다.

KREI는 이번 감자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고령지 감자의 주산지인 강원도의 폭염 및 가뭄을 꼽았다. 강원지역의 올 7-8월 최고 기온은 31.2도로 평년(29.8도)보다 높았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역대 최악의 가뭄 현상이 감자 생육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7-8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463.7mm)보다 40% 적은 278mm에 불과했다. 강원지역의 가뭄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30일 자연 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 일대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강릉시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날 오전 7시 40분

기준 14.9%에 머무르는 등 하루 전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상황이다.

고령지감자 농가에서도 생육지연 등 작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관측센터가 지난 7-13일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감자 작황이 전년보다 '좋다'고 답한 농가는 16.9%, '나쁘다'고 답한 농가는 31.5%로 집계됐다.

9월에도 감자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염 및 가뭄으로 감자가 크기를 키워야 할 비대가 제대로 자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달 중순께 내린 폭우로 수확마저 지연되면서 9월 감자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REI는 9월 감자 출하량이 1년 전보다 6.5% 적고, 올해 전체 생산량도 11만 4514 t으로 9.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부랴부랴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감자가 식탁에 오르는 반찬의 주요 재료인 데다, 감자를 활용한 가공식품 역시 적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비상급수처리를 동원하는 등 주요 생산지에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해외산 감자 수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 2배 '쑥'

지난해 원양 어선 어획량 47만 9000t·16.8% ↑ ...고수은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양 어선 어획량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은 현상으로 어획량이 대폭 줄어든 연안산 오징어의 대체재인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 9000 t으로 전년(41만 t) 대비 16.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액은 1조 5258억원, 수출량은 17만 1000 t으로 전년도에 각각 38.7%, 18.3% 올랐다.

특히 원양어업 생산액이 생산량 대비 증가폭이 컸던 것은 오징어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징어는 1 t 당 620만원으로 원양어업 주요 품목인 가다랑어(190만원)보다 같은 생산량

대비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양산 오징어류 생산량은 7만 3600 t으로 전년(3만 3500 t) 대비 119.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132.7% 증가한 이후 7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원양산 오징어류 어획량이 증가한 것은 연안산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연안산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20년 8652 t에 달했지만 고수은 등 기후변화로 인해 4년 뒤인 지난해에는 852 t으로 90.2% 감소했다.

원양산 오징어류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원양산 어획량도 대폭 증가했다. 주요 품목인 가다랑어는 1년 전보다 23.8% 늘었고, 민대구류(21.9%), 콩치(88.8%), 대구(10.5%), 녹새치(31.3%) 등이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신규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48개사 신규 지정

MD초청 상담회도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8일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2025년 신규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지정 수여식' 및 판로 개척을 위한 'MD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협력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중소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입점 업체는 781개로 전년(671개) 대비 16% 증가했다. MD 상담회 및 전용판매관 특별 판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들의 매출 총액도 전년(472억원) 대비 17% 늘어난 55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총 48개 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국제박람회 참가, 자금 지원,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지정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MD 상담회에는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새농 등 주요 유통업체 16개사의 상품기획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며 입점 기회를 모색했고, 시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

호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 더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상호 협업을 통해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재생 계획 논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등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29일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전남 농촌공간 지역협의체(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 21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변화 공유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개정된 수립지침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 및 지정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변화된 지침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 강연, 분과별 토론, 농촌특화지구 사례 강연, 현장 탐방 등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신안군 팔금면 일대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3개 지구를 직접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농촌 워케이션' 확대

농식품부, 11월까지 곡성 리스틱타운 등 4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영천 한의마을, 강릉 오선그레이트, 흥천 무네미농장, 정읍 송죽마을, 상주 객주촌, 남원 혼불 체험관 등 6개 거점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곡성 리스틱타운, 남해 소도읍, 이천 산수유마을, 공주 힐스포레 등 4개 거점을 추가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 트렌드가 유행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참가자에게는 평일 1인 기준 1일 당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과 여행자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 또

는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했으며, 기존 사업 대상지 6개 거점은 농촌 워케이션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농촌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용 플랫폼인 '다어먼데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디어먼데이 회원가입 후 예약 결제를 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교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은 원격근무 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해당 사업이 농촌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4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